

지속되는 잘못된 인식: 중국-미국 ‘디커플링’에 대한 비판적 시각

Rukmani Gupta

2023년 2월



저자 정보

Rukmani Gupta 는 학계, 싱크탱크 및 산업 분야에서 15 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독립 국방 분석가로, Janes Group, 국방 연구 및 분석 연구소, 평화 및 분쟁 연구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India Quarterly 의 부 편집장을 역임했다. 그녀는 아시아의 국제 안보, 지정학, 국방 전략 및 군사 역량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PLNofficial



apl.network



@APLNofficial



@APLNofficial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 핵비확산군축 리더십 네트워크(Asia Pacific Leadership Network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PLN)는 핵무기 위협을 해결하고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및 국방 문제를 다루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정치, 군사, 외교 지도자 네트워크이다.

© 2023 Rukmani Gupta

이 보고서는 4.0 국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 따라 게시되었습니다.

이 발행물은 뉴욕 카네기 코퍼레이션 (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에서 기금을 지원받아 출간되었습니다.

여기에 표명된 내용은 저자 자신의 견해일 뿐 제휴 기관, APLN 또는 그 소속 직원, 이사회 또는 기금 지원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연락처로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APLN Secretariat

4th floor, 116, Pirundae-ro

Jongno-gu, Seoul, ROK, 03035

Tel. +82-2-2135-2170

Fax. +82-70-4015-0708

Email. apl@apl.network

이 발행물은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www.apln.network



표지 사진: iStock/summerphotos

지속되는 잘못된 인식: 중국-미국 '디커플링'에 대한 비판적 시각

Rukmani Gupta

서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절 양국 간 무역 및 관세 전쟁으로 인해 중국-미국 관계의 '디커플링'에 대한 논쟁이 등장했다. 적절하게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대중 매체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양자 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기 위해 디커플링이라는 용어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디커플링은 두 나라 사이의 공통 관심사가 크게 축소되고 양국 간 정책이 상이하지는 않더라도 점점 더 독립적으로 치닫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디커플링은 양국 간 점점의 감소로 특징지어지는 기존 양자 관계의 붕괴로 볼 수 있다. 이 붕괴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거치며 강도가 달라지는 과정이다.

중국과 미국이 서로에게 부과한 맞대응 관세로 인해 양국 간 '경제적 디커플링' 전망이 먼저 제기되었지만, 디커플링을 둘러싼 담론은 이제 기술적, 지정학적 문제를 포함한 경제적 문제 그 이상을 포괄하게 되었다. 특히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지정학적 안정성 측면에서 다양한 영역에 걸친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결과에 대한 우려 사항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다.¹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발생한 디커플링이 피상적이었지만, 디커플링에 대한 담화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적 상호 작용 패턴의 실제 변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경제적 상호 작용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공식적인 부정적 표현에 의해 강화되며, 이는 다시 전반적인 양국 관계에 존재하는 긴장을 고조시킨다. 중국과 미국이 관계 악화에 대해 서로를 계속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된 양자 관계의 부담은 아세안을 비롯한 양국과의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역내 다른 주체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¹ 참조: Michael Heath와 Kathleen Hays, "IMF's Berger Warns China Tech Decoupling Would Slash Global GDP", *Bloomberg*, 16 2021년 4월,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4-16/imf-s-berger-warns-china-tech-decoupling-would-slash-global-gdp#xj4y7vzkg>, Richard Heydrick, "Why Southeast Asia is desperate for a US-China detente", *South China Morning Post*, 2022년 11월 22일, <https://www.scmp.com/comment/opinion/article/3200258/why-southeast-asia-desperate-us-china-detente>.



iStock/AvigatorPhotographer

미중 디커플링 (경제적 탈동조화) 문제

일부 보도와 달리 2018년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양국 간 경제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증거는 사실상 거의 없다.² 미국 정부의 무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의 대중 수출은 2020년보다 21.4% 증가했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그에 상응하여 16.5% 증가했다.³ 미국의 대중 수출액이 1,304억 달러로 평가된 2017년 이후 2021년에는 미국의 대중 수출액이 1,511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2017년 5,056억 달러였던 미국의 중국 수입액은 증가세가 미미해 2021년에는 5,064억 달러로 평가되었다.⁴

중국 세관 자료에서 전체 무역의 성장에 대한 유사한 설명을 찾을 수 있다.⁵ 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대미 수출은 27.5% 증가한 반면 수입은 전년 대비 32.7% 증가했다.

미국은 아세안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의 세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 자리를 유지했다.⁶

2 Anne Hoecker 외, “US-China Decoupling Accelerates, and Shockwaves Spread”, 2022년 9월 19일, Bain & Company, <https://www.bain.com/insights/us-china-decoupling-tech-report-2022/>.

3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2022), “U.S. Trade with China”, <https://www.bis.doc.gov/index.php/country-papers/2971-2021-statistical-analysis-of-u-s-trade-with-china/file>.

4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2018), “U.S. Trade with China Overall Trends 2017”, <https://www.bis.doc.gov/index.php/documents/technology-evaluation/ote-data-portal/country-analysis/2356-2017-statistical-analysis-of-u-s-trade-with-china-pdf/>.

5 중화인민공화국 관세청 일반 관리(2022), “China's Total Export & Import Values by Country/Region, December 2021 (in USD)”, <http://english.customs.gov.cn/Statics/46bdb268-260d-46a1-adde-e3cebcaf6817.html>.

6 Shen Weiduo와 Chu Daye, “US' trade with China surges 28.7% in 2021, but widening deficit proves tariffs 'a failure', *Global Times*, 2022년 1월 14일, <https://www.globaltimes.cn/page/202201/1245953.shtml>.

이는 관세 부과가 양국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다.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5%의 관세로 타격을 입은 중국 상품의 미국 수입은 팬데믹 기간 동안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았다.⁷ IT 하드웨어와 가전제품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60% 이상 감소한 반면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은 비슷한 비율로 급증했다. 결국, 7.5% 관세로 타격을 받았던 중국산 제품 수입이 소폭 증가하는 등 무역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하지만 다른 나라로부터의 유사한 수입은 50% 이상 증가했다.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중국산 제품(노트북, 장난감, 전화기 등)은 무역전쟁 이전 수준을 넘어 미국으로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평균 50%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양국 무역액은 무역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개선되고 있다. 높은 관세로 타격을 입은 상품의 수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로 타격을 입지 않은 상품의 수입이 증가했다. 따라서 무역전쟁 이전과 비교해 대미 중국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지만, 양국의 전반적인 무역 관계는 ‘디커플링’ 되거나 악화되지는 않았다. 공급망의 다변화가 계속되면서 수입 증가율은 빠르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방향 해외직접투자(FDI)와 관련하여, 중국의 미국 FDI는 전년보다 감소했다. 2020년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 미화 887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는 2019년 투자한 미화 1,331억 달러에서 크게 하락한 수치다. 2020년 미국 FDI가 중국에 진출하는 수치는 지난 10년간의 평균 금액보다 낮다. 그러나 중국의 대미 투자는 2019년 수치보다 2020년에 미미하게 증가했다.⁸ 유엔 무역개발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FDI는 코로나 19 팬데믹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42% 감소했다.⁹ 따라서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FDI 흐름 감소는 전반적인 경기 둔화로 잘 설명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는 중국에 대한 세계적인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중국의 FDI 성장은 2020년 6% 증가한 후 2021년 21% 증가했다.¹⁰

7 Chad P. Bown, “Four years into the trade war, are the US and China decoupling?”,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22년 10월 20일, <https://www.piie.com/blogs/realtime-economics/four-years-trade-war-are-us-and-china-decoupling>.

8 Thilo Hanemann 외, “Two-Way Street: 2021 Update US-China Investment Trends”, 2021년 5월, https://rhg.com/wp-content/uploads/2021/05/RHG_TWS-2021_Full-Report_Final.pdf.

9 유엔무역개발회의, “Global foreign direct investment fell by 42% in 2020, outlook remains weak”, 2021년 1월 24일, <https://unctad.org/news/global-foreign-direct-investment-fell-42-2020-outlook-remains-weak>.

10 유엔무역개발회의, “Foreign investment in developing Asia hit a record \$619 billion in 2021”, 2022년 6월 9일, <https://unctad.org/news/foreign-investment-developing-asia-hit-record-619-billion-2021>.



iStock/Bet_Noire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작용 패턴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편리하지만, 양국의 국내 경제 우려는 경제관계 변화를 주도했다.

더 큰 기술 및 과학적 진보를 추구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공통된 목표이지만, 2015년에 시작된 MIC(Made in China 2025) 계획은 중국의 외국 소유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기업이 합병, 지분 투자, 해외 벤처 자본 투자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을 제안했다.¹¹ MIC의 일환으로 중국의 전략적 부문에서 핵심 부품과 기본 재료의 70% 자급률을 달성하는 제조업의 업그레이드가 구상되었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추구하면서, 중국은 유럽과 미국 전역의 하이테크 분야에 투자를 모색했다. “비합리적인” 해외투자를 통제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을 체계화한 것은 2017년 투자 장려, 제한 및 금지 목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대외 직접

11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Made in China 2025”, 2015년 7월 7일, <http://www.cittadellascienza.it/cina/wp-content/uploads/2017/02/IoT-ONE-Made-m-Chma-2025.pdf>.

투자(OFDI) 체제로 이어졌다.¹² 권장 목록에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따른 인프라 투자, 첨단 제조업 및 R&D가 포함되었고, 금지 목록에는 중국의 이익과 안보에 해로울 수 있는 투자가 포함되었다. 2020년까지, 중국은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부정적 목록'을 통합하여 외국인 투자법을 채택하여 자국 내 FDI를 안내했다.¹³

코로나 19 팬데믹의 경제적 불확실성과 미국과의 경제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은 대외 무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공고히 했다. 따라서 '이중 순환'(雙循環)과 '이중 순환에 따른 공동 번영'(共同富裕)과 같은 개념은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을 심화하여 수출에 대한 중국의 과잉 의존을 시정하고, 중국의 국제 무역을 보완하면서 경제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내수 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¹⁴ 특히 MIC의 여파로 중국 기업의 대외 인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유럽과 미국의 국가 경쟁력 침식에 대한 우려가 합쳐졌다.¹⁵ 선진국의 중국 FDI는 그린필드 투자보다는 인수합병에 초점을 맞췄고 OFDI에서 국영기업(SoE)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SoE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주식시장을 활용하는 중국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우려가 있었다.¹⁶ 중국 내 외국 기업에 대한 대우와 이들이 직면한 제약은 투자 기회의 범위와 규모에서 상호 호혜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또 다른 오랜 관심사였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제공한 숨은 보조금 또한 오랜 관심사였다.

12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Notice of Guiding Opinions to Further Direct and Regulate the Direction of Overseas Investment", 2017년 8월 4일,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8/18/content_5218665.htm.

13 2021년에 새로운 부정적 목록이 발행되어 이전에 발행된 제한 사항을 줄였다. 비교를 위해 Qian Zhou와 Zoey Zhang, "China's 2021 Negative Lists Widen Market Access for Foreign Investment", *China Briefing*, 2021년 12월 27일, <https://www.china-briefing.com/news/2021-china-negative-lists-update-widen-market-access-for-foreign-investment/>를 참조한다.

14 Liu He, "Accelerate the construction of a new development pattern with the domestic cycle as the main body and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dual cycles promoting each other" (加快国内国际双循环相互促进的新发展格局), *People's Daily*, 2020년 11월 25일, http://www.gov.cn/guowuyuan/2020-11/25/content_5563986.htm.

15 참고 자료 예: Angela Stanzel, "Germany's turnabout on Chinese takeovers",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7년 3월 21일, https://ecfr.eu/article/commentary_germanys_turnabout_on_chinese_takeovers_7251/ 및 Alan Rappeport, "U.S. Outlines Plans to Scrutinize Chinese and Other Foreign Investment", *The New York Times*, 2019년 9월 17일, <https://www.nytimes.com/2019/09/17/us/politics/china-foreign-investment-cfius.html>.

16 미국 경제 분석국 참조, "China -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Country Facts"; <https://apps.bea.gov/international/factsheet/factsheet.html#650>; 또한 다음을 참조한다. 미국 기업 연구소,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 <https://www.aei.org/china-global-investment-tracker/>.

국가에서 운영하는 외국 기업과 해외 시장을 위해 경쟁하는 기업들에게 불리한 점은 “공정 경쟁” 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미국의 태도이다.¹⁷ 또한, 국가 안보 문제는 무역 전쟁 이전에 이미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과 투자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2013년 미국 정부의 중국 IT 장비 구매 제한이 중국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미국 정부가 독일 반도체 기업인 Aixtron 을 효과적으로 매입하기 위해 중국 입찰을 차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¹⁸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일자리를 되찾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안하는 등 국내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무역 정책을 만들면서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도출했다.¹⁹

표현과 인식 창조의 문제

무역과 투자 자료에 따르면 경제 관계에 예기치 않은 파급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지만, 관세 및 무역전쟁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표현은 양국 관계 전반을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양국의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위협 인식과 발언이 자연스럽게 국내의 인식과 태도를 형성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중국 국무원은 2019년 6월 '미·중 경제·무역 협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무역 백서를 발간했다.²⁰ 이 문서는 미국의 행동을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국의 진전을 고려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중국 무역뿐만 아니라 일반 미국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으로 특징되는 무역 전쟁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제시한다.²¹

17 참조: Masahiro Okoshi와 Ryo Nakamura, “U.S.-China decoupling not Washington's goal: diplomat”, *Nikkei Asia*, 2022년 9월 22일, <https://asia.nikkei.com/Editor-s-Picks/Interview/U.S.-China-decoupling-not-Washington-s-goal-diplom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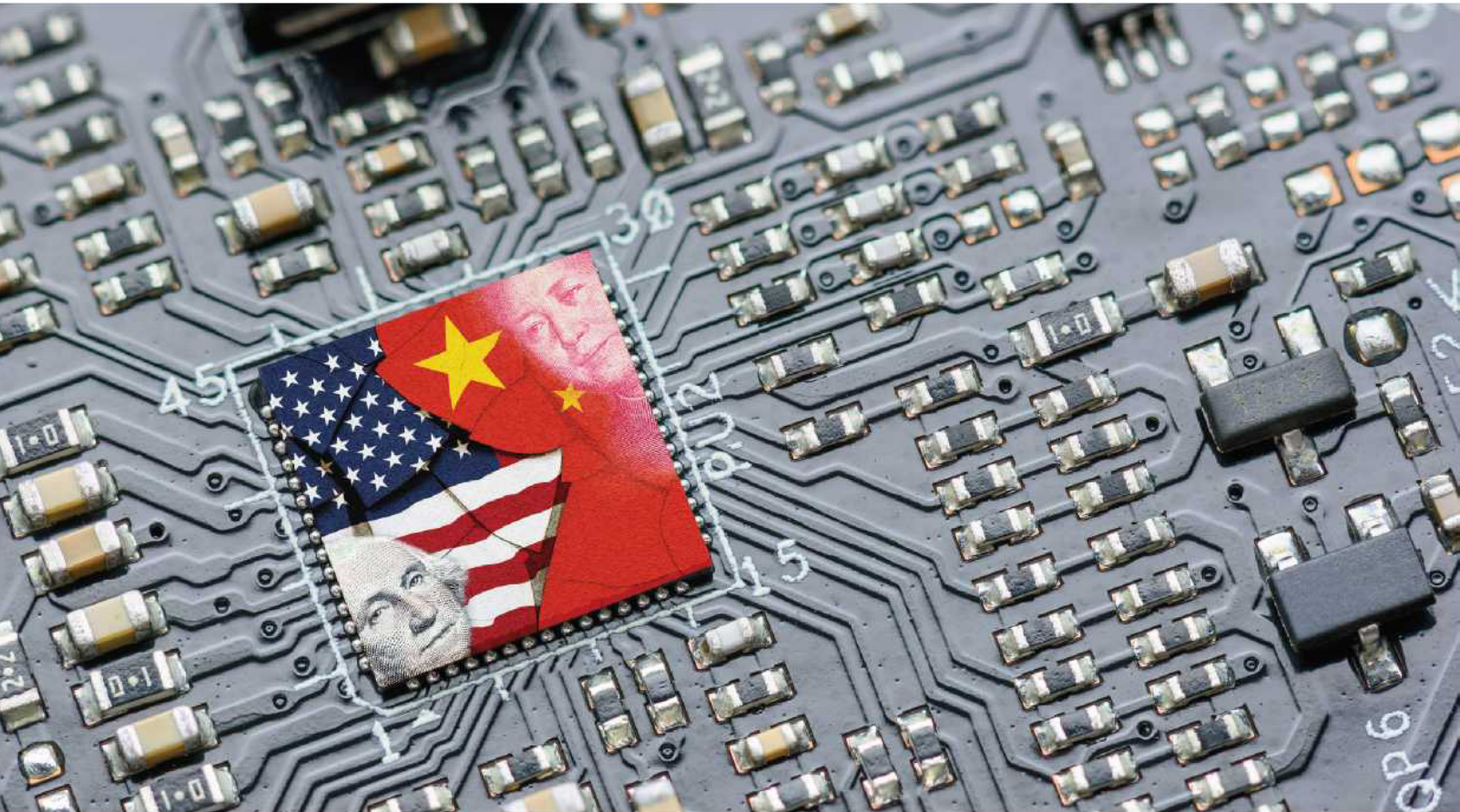
18 참조: Alina Selyukh와 Doug Palmer, “U.S. law to restrict government purchases of Chinese IT equipment”, *Reuters*, 2013년 3월 28일, <https://www.reuters.com/artide/us-usa-cybersecurity-espionage-idUKBRE92Q18O20130327>; and David McLaughlin,

“Obama Blocks Chinese Takeover of Aixtron as U.S. Security Risk”, *Bloomberg*, 2016년 12월 3일,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12-02/obama-blocks-chinese-takeover-of-aixtron-as-u-s-security-risk#xj4y7vzkg>.

19 대중의 담론에서, 미국의 저임금 제조업 일자리의 손실은 급증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와 결부되었다. 참고 블로그: “미국 제조업 동맹” 회원들이 작성한 기고문 “Alliance for American Manufacturing” <https://www.americanmanufacturing.org/blog/>, 또한 다음도 참조한다. Anshu Siripurapu와 Noah Berman, “The contentious US-China Trade Relationship”, 외교 협회, 2022년 12월 2일, <https://www.cfr.org/background/contentious-us-china-trade-relationship>, 또한 다음도 참조한다. Alexandra Alper와 Andrea Shalal, “Trump promises tax credits for firms that bring jobs back from China”, *Reuters*, 2020년 8월 18일,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trump-manufacturing-idUSKCN25D2EM>.

20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Chinas Position on the China-US Economic and Trade Consultations”, 2019년 6월 2일, http://english.www.gov.cn/archive/white_paper/2019/06/02/content_281476694892692.htm.

21 주요 사항에 대한 간결한 요약: “China releases white paper on its position on economic and trade consultations with US”, *Xinhuanet*, 2019년 6월 2일,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9-06/02/c_138110173.htm.



iStock/William_Potter

그 이후 시진핑 주석과 같은 중국의 고위 지도자들은 “장벽을 세우고 분리하려는 시도는 경제와 시장 원칙에 위배된다”며 “오늘날 세계의 필요는 패권이 아니라 정의”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미국과 대조적으로 중국이 자유 무역과 정의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공식화한 것이다.²²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중국의 정치 체제와 발전 경로, 집권당을 겨냥한다”는 미국의 비논리적인 정책을 고려할 때 새로운 냉전의 출현을 피하기는 어렵다.²³ 왕이 외교부 장관과 같은 중국 관리들은 현 상황을 “미국이 실제로 경제적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특징짓고 있다.²⁴ ‘디커플링’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위험에 처한 관계를 강조하거나 지배적인 상황에 더 큰 시급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2 아시아 보아오 포럼, “Full Text: Keynote speech by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Boao Forum for Asia Annual Conference 2021” 2021년 4월 21일, https://www.boaoforum.org/ljnh/2021nh/html/detail_2_220_16961.html.

23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Wang Yi Raises Four Questions about the United States' China Policy”, 2022년 9월 23일, https://www.fmprc.gov.cn/mfa_eng/zxxx_662805/202209/t20220924_10771021.html.

24 Wang Yi, “US needs immediate action to bring China relations back to the track of sound development”, *Global Times*, 2022년 10월 30일, <https://www.globaltimes.cn/page/202210/1278333.shtml>.

중국의 논평은 무역전쟁의 모든 책임을 미국의 탓으로 돌리고 미국의 조치를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시도로 간주하여 명확한 입장을 수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²⁵

미국 정책에 관한 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미국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담화는 중국이 국제 경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숙였다'는 오랜 원망에 젖어 있다.²⁶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추가 관세 통지는 “기술 이전, 지적 재산권 및 혁신과 관련된 중국의 행위, 정책 및 관행은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에 대한 부담”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한 대응으로 특징지어지며, “미국 기술 및 지적 재산권 강제 이전과 관련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²⁷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무역 관세를 지속하고 반도체 칩에 대한 새로운 수출 규제를 도입하려는 명시적인 목표는 상업적 기술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국의 군사-민간 융합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²⁸ 따라서 관세 및 무역 제한의 명시된 목적의 변화는 분명하다. 바로 트럼프 정부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에서 바이든 정부의 국가 안보 고려 사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러한 안보에 대한 분명한 강조는 남중국해, 대만, 인권 문제와 미국 언론에서의 보도와 같은 다양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군사적 주장이 강화된 직접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²⁹ 특히 2022년 미국 국방 전략은 인도-태평양을 재편하려는 중국의 활동을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도전으로 파악하고 있다.³⁰

25 논평은 미국의 '패권적' 태도와 불합리한 위협 인식을 강조한다. 몇 가지 대표적 견해 참조: 중국 외교부 “Reality Check: Falsehoods in US Perceptions of China”, 2022년 6월 19일, https://www.mfa.gov.cn/eng/wjbxw/202206/t20220619_10706059.html 및 Xia Yuanyi, “For tense U.S.-China relations, blame Washington politicians”, *Xinhua*, 2022년 4월 27일, <https://english.news.cn/20220427/901f740f1bf8424a83901be93bf314b7/c.html>.

26 “Remarks by President Trump at the Economic Club of New York” 2019년 11월 12일,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economic-club-new-york-new-york-ny/>.

27 미국 무역대표부, “USTR Issues Tariffs on Chinese Products in Response to Unfair Trade Practices”, 2018년 6월 15일,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8/june/ustr-issues-tariffs-chinese-products>, 미국 무역대표부, “USTR Finalizes Second Tranche of Tariffs on Chinese Products in Response to China's Unfair Trade Practices”, 2018년 8월 7일,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8/august/ustr-finalizes-second-tranche>.

28 Chelsea Cox, “U.S. Commerce Secretary Raimondo doubles down on Biden plan to restrict American companies, and citizens, from helping China make semiconductor chips”, *Bloomberg*, 2022년 11월 3일, <https://www.cnbc.com/2022/11/03/us-commerce-secretary-ramondo-doubles-down-on-biden-plan-to-restrict-us-companies-and-citizens-from-helping-china-make-semiconductor-chips.html>.

29 대표적 견해 참조: 미국 국무장관실, “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 2020년 11월,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20/11/20-02832-Elements-of-China-Challenge-508.pdf>, David L. Lynch, “White House calls for ‘new course’ on China trade ties”, *The Washington Post*, 2022년 10월 4일, <https://www.washingtonpost.com/us-policy/2021/10/04/tai-biden-china-trade/>; Thomas L. Friedman, “How China lost America”, *The New York Times*, 2022년 11월 1일, <https://www.nytimes.com/2022/11/01/opinion/china-united-states-trade-economy.html>.

30 미국 국방부,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https://media.defense.gov/2022/Oct/27/2003103845/-1/-1/1/2022-NATIONAL-DEFENSE-STRATEGY-NPR-MDR.PDF>.

중국이 새로운 능력 개발과 PLA의 글로벌 배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감안할 때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이전을 촉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점은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와 리소그래피 장비 이전 제한이 중국 기업들이 소형 컴퓨팅 노드를 빠르게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중국의 '새로운 전투 능력을 갖춘 새로운 영역의 군대' 창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³¹

이 표현과 논평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양국의 여론조사에 반영된다. 2020년 *Global Times*가 바이든 행정부 취임 전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참가자의 65.6%가 트럼프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53.2%가 미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46.9%는 미 언론과 중국에 대한 "편향된" 보도가 불리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47.5%는 중국-미국 관계가 중국에게 가장 중요한 양국 관계이며, 바이든 행정부가 긴장을 악화시키기 보다는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³² 트럼프 정부에 대한 중국의 견해는 호의적이지 않았으나 2020년 대통령 선거 이후 다소 반등했으며, 중국 외의 학계에서 실시한 연구에도 반영되어 있다.³³ *Global Times*가 실시한 또 다른 여론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5년 만에 처음으로 대다수의 응답자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로 꼽지 않았다. 러시아와 유럽연합(EU)과의 관계가 미국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바이든 정부 하에서 중국-미국 양국 관계의 변화를 대다수가 "대외적으로는 평화롭지만 내부적으로는 싸우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⁴ 2022년 3월, 또 다른 *Global Times*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2.16%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패권 간 갈등'을 양국 관계 긴장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72.42%는 중국이 하드파워 측면에서 미국을 꺾어야 양국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으로 봤다.³⁵

31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강력한 전략적 견제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전투력을 갖춘 새로운 영역의 병력 비중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적 견제에 대한 언급은 중국의 현재 견제 능력의 충분성에 대해 재고해야 함을 시사한다. '새로운 전투력을 갖춘 새로운 영역의 병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은 영토뿐만 아니라 사이버와 정보 영역을 포함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새로운 병력 및 지능형 역량의 생성은 컴퓨팅 시스템에 의존할 것이다.

32 "Chinese rational on China-US ties: GT poll" *Global Times*, 2020년 12월 26일, <https://www.globaltimes.cn/content/1211038.shtml>.

33 Songying Fang, Xiaojun Li, Adam Y. Liu, "Chinese Public Opinion about US-China Relations from Trump to Biden",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2022, 15, 27-46.

34 Chen Qingqing, Cao Siqi, Zhao Juecheng, "GT investigates: Chinese value China-Russia ties over China-US relations amid West's containment: GT poll", *Global Times*, 2021년 12월 29일, <https://www.globaltimes.cn/page/202112/1243624.shtml>.

35 Yang Sheng과 Xie Jun, "China wont abandon principles to repair ties with US: GT survey" *Global Times*, <https://www.globaltimes.cn/page/202203/1253534.shtml>.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미국 여론과 관련하여 일부 미국인들은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했지만, 2022년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인의 82%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는데, 이는 2020년 79%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³⁶ 이러한 인식을 고려할 때, 양국 관계 재설정과 그러한 재설정이 수반할 양보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창출하려면 두 나라 모두에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

경제 영역 등에서 양국 관계가 당장 결렬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 이해관계와 접점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디커플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시아 태평양 등에서의 우려는 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편을 들어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³⁷ Edward Luttwak는 강대국들이 "외국인의 민감성에 대한 명백한 무감각"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설명했다.³⁸ 지역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인식과 기대에 맞는 외교 정책 결정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미국은 이 지역의 군사적 주둔이 전적으로 환영받기를 기대하고 중국은 이 지역의 투자 제안에 대한 새로운 저항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양국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강대국 간 경쟁 구도로 회귀하여 중국-미국 관계 악화의 영향을 제한하는 것이 다른 나라들의 과제가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은 아세안, 동북아시아 또는 남아시아 국가들, 태평양 섬 국가들,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중국의 차이를 중재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장려하는 것이다. 상호 관심사에 대한 논의의 길은 이미 ASEAN 플러스 포맷, 상그릴라 대화 또는 인도양 대화와 같은 다자간 그룹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시작을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의 관리들과 학자들이 상호 위협 인식을 완전히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인정을 통해 잘못된 인식에 대한 책임 실질적인 대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향을 완화시킬 것이다.

36 Laura Silver, "Some Americans' views of China turned more negative after 2020, but others became more positive", Pew Research Center, 2022년 9월 28일,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22/09/28/some-americans-views-of-china-tuned-more-negative-after-2020-but-others-became-more-positive/>.

37 Dian Septiari, "US does not want to force ASEAN to choose sides: Official" *The Jakarta Post*, 2020년 9월 16일, <https://www.thejakartapost.com/seasia/2020/09/16/us-does-not-want-to-force-asean-to-choose-sides-official.html>.

38 Edward Luttwak, *The Rise of China vs. The Logic of Strateg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2), 247, Kindle. 다음 자료도 참조: "Great State Autism" Harvard University Press Blog, 2013년 4월 2일, https://harvardpress.typepad.com/hup_publicity/2013/04/great-state-autism-in-israel-and-china.html.

지역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인식과 기대에 맞는 외교 정책 결정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미국은 이 지역의 군사적 주둔이 전적으로 환영받기를 기대하고 중국은 이 지역의 투자 제안에 대한 새로운 저항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APLN 미국-중국-아시아 대화

시종일관 악화일로를 걸어 온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야기되는 안보 딜레마는 공포, 불신,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아시아태평양 전역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잠재적인 여파에는 군사적 대립과 핵 고도화 가능성이 포함되며, 21 세기에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 시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

APLN의 프로젝트인 미국-중국-아시아 대화는 일련의 학술적 교류와 발행물을 통해 이해 증진, 잘못된 인식 감소, 위협과 긴장 완화, 신뢰 구축에 어떤 단계가 필요한지 평가한다. 이 프로젝트는 특히 아시아태평양과 워싱턴, 베이징의 의사결정자와 정책 공동체를 위한 실용적인 정책 권고를 고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시아태평양 핵비확산군축 리더십 네트워크(APLN)는 핵무기 위협을 완화하고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글로벌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 군사 및 외교 지도자 네트워크로,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

APLN의 임무는 핵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weapon of mass destruction, WMD) 위협에 중점을 두고 지역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 권고안을 알리고 토론을 활성화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가 봉쇄되고 축소되어 결국 제거되는 세상을 이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기여하는 것이다.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pl.n.network



[@APLNOfficial](https://www.facebook.com/APLNOfficial)



[@APLNOfficial](https://twitter.com/APLNOfficial)



[@APLNOfficial](https://www.linkedin.com/company/APLNOfficial)